

영남지역 발전의 전망과 과제:

(1) 발전과정과 삶의 질

최병두*

본 논문은 영남지역의 발전과정과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고 앞으로 발전전망 및 그 과제들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의 前篇이다. 영남지역은 우리나라의 본격적 산업화 및 도시화과정에서 급속한 성장을 해왔지만 최근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물질적으로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영남지역의 경제는 그동안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포드주의적 중화학공업에 기초하여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지만, 최근의 경제적 침체는 결국 중앙의존적 지역불균등발전과정의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전개된 지역내 하청관계의 심화, 업체들의 지리적 집중, 첨단기술산업의 성장잠재력 부족, 생산자서비스업종의 취약성, 자본흐름과 관련된 금융활동의 미진 등이 이 지역의 경제적 침체를 야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과정에서, 사회간접시설의 부족과 도시중추관리기능의 부재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중사상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제조업부문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지라도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서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의 생활수단과 복지시설의 제공에 있어 사회계층적 불균형이 다소 심각하며, 자연이용과 생태환경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主要語 : 영남지역, 산업화, 도시화, 지역불균등발전, 삶의 질

1. 머릿말

영남지역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변화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근대적 산업화과정을 견인하는 한 축을 담당해 왔다. 근대화과정 이전에도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이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었지만, 특히 1960-70년대 급속하게 추진된 국토개발 및 경제성장과정에서, 영남지역의 산업과 인구는 수도권지역과 더불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지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생산성과 소득수준도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생산성의 증대와 소득수준의 상승이 과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느 정도 개선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가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경제의 외형적

성장이 어떤 경제정치적 및 사회공간적 과정에 의해 추동되었는가에 대해서도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영남지역의 경제성장율은 수도권에 비해 점차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노동집약적 섬유산업이나 포드주의적 생산설비 또는 표준화된 기술에 의존한 제철·전자산업에 기초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제는 상당한 침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하청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영남지역의 경제성장이 자립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불균등발전으로 편승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른바 '세계화-지방화'라는 명제하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정치적 여건 변화는 영남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이 이러한 변화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

고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지방화과정은 한편으로 초국적자본이 첨단기술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질서를 재편시키면서, 각 국가 또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개별 지역들에 직접 침투하여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위로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본격화는 중앙집중된 권력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비록 명목적이라고 할지라도) 분산시키면서, 각 지역의 시민과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각 지역들로 하여금 이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경쟁을 가열시키고, 지역의 내적 발전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달리 말해서 이러한 세계화-지방화과정이 과연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면서 진정한 지역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물론 오늘날 어떤 한 지역의 변화가 진정한 발전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외형적 팽창이나 또는 퇴행으로 이어질 것인가의 여부는 해당 지역의 주체들이 그 지역의 내적 특성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지역 외적 조건들의 변화에 얼마나 주체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영남지역이 어떠한 발전과정을 거쳐왔으며,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또한 최근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외적 변화가 지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내·외적 조건들 하에서 영남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영남지역의 발전과정과 현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발전전망 및 그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긴 분량으로 인해, 2편의 논문으로 나누어졌다. 전편의 논문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본격적 산업화 및 도시화과정에서 영남지역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그 결과로서 이룩한 현재 상황을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재평가해 보고자 한다. 후편의 논문에서 우리는 최근 전개되

고 있는 외적 역건의 변화가 영남지역에 미칠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계획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영남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적 정책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영남지역의 산업화과정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적으로 추진된 경제우선성장전략에 따라 급속하고 압축적인 산업화과정을 전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축은 수도권과 영남권이였다 (김석준, 1992; 김왕배, 1992; 김덕현, 1992; 초의수, 1993). 1960년대 이전 국가경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제조업체들은 비교적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었다. 즉 <표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63년 제조업체들은 수도권, 영남권 및 그의 지역에 각각 33%정도 입지해 있었다. 그러나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으로 볼 때, 이 당시 이미 수도권과 영남권, 특히 서울과 부산은 국가경제에서 상당히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1963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서울과 부산이 차지한 비중은 각각 35.8% 및 15.5%로서 두 도시를 합치면 50%이상을 상회했고, 이에 힘입어 수도권과 영남권이 차지한 비중은 각각 45.3%, 32.1%를 나타내었다. 이는 이미 서울 및 부산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남권에 입지한 사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였거나 또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이었음을 의미한다. 즉 1950년대와 60년대 초에 지배적이었던 전통적 또는 원조의 존적 단순가공형태의 소비재산업들 중에서 다소 발전된 업체들이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하여 입지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조업체수로 볼 때, 이 시기 대구경북지역에는 전통적 제조업체들이 부산경남지역에 버금갈 정도로 분포해 있었다.

1962년부터 실시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수출지향적 경공업과 수입대체산업이 집중 육성됨에 따라, 국가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즉 1963년 경

표 1. 지역별 제조업 사업체 및 부가가치 생산 추이 (단위: 백억원, %)

구분	년도	전국	수도권			영남권				그외 지역			
			서울	경기	영남권	부산	경북	경남	충남북	전남북	강원제주		
사업체수	1963	18,310(100.)	32.8	24.0	8.8	34.1	10.8	15.2	8.1	33.1	16.1	16.6	4.4
	1968	24,109(100.)	33.4	24.3	9.0	31.2	8.1	15.6	7.5	35.4	11.3	18.7	5.4
	1973	23,293(100.)	35.5	25.0	10.5	32.2	8.7	16.7	6.8	32.3	10.7	17.0	4.6
	1978	29,864(100.)	43.5	26.0	17.5	33.0	11.0	15.5	6.5	23.6	8.5	11.2	4.0
	1983	39,263(100.)	52.4	31.4	21.1	30.4	11.8	13.1	5.5	17.2	6.2	8.3	2.7
	1988	59,928(100.)	58.1	28.6	29.5	28.2	10.9	11.6	5.7	13.8	5.1	6.7	1.9
	1992	76,357(100.)	55.1	22.8	32.3	28.7	10.0	12.0	6.7	20.3	6.5	7.7	2.1
부가가치생산	1963	6.2(100.)	45.3	35.8	9.5	32.1	15.5	12.9	3.6	22.6	9.1	11.0	2.5
	1968	30.1(100.)	44.5	33.2	11.3	35.7	14.9	8.2	12.6	19.8	9.4	7.5	2.9
	1973	134.9(100.)	45.8	30.5	15.3	38.3	15.5	11.5	11.3	15.9	5.0	8.9	2.1
	1978	819.2(100.)	46.1	20.0	22.5	38.8	11.6	10.6	21.5	15.1	5.9	6.8	1.2
	1983	2,091.1(100.)	43.0	6.6	26.4	40.3	9.9	13.1	17.3	16.8	7.4	8.0	1.3
	1988	4,834.2(100.)	46.0	13.2	32.9	37.9	7.6	13.6	16.8	16.1	7.0	7.4	1.7
	1992	9,725.7(100.)	42.8	9.9	32.9	36.8	6.1	12.4	18.3	20.3	8.9	9.2	2.2
중화학공업	1968	12.6(100.)	44.0	31.1	12.9	44.3	16.8	3.6	23.9	11.7	5.4	4.1	2.1
	1978	437.2(100.)	46.0	19.1	26.8	43.6	12.7	9.9	21.0	10.5	3.8	5.2	1.5
	1988	3,134.7(100.)	44.2	8.5	35.7	42.9	7.9	13.3	21.7	12.9	5.3	6.6	1.1

자료: 경제기획원, 『광공업센서스』 및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해당년도.

제철동인구중 농림수산업 등 1차산업과 광공업 종사자의 비중은 각각 63.0%, 8.7%였으나, 1970년에는 1차산업종사자는 50.4%로 감소한 반면, 광공업종사자는 14.3%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 창업한 제조업체들은 대체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입지했지만, 기존 전통적 소상공생산업체들의 소멸로 인해 이 지역들의 사업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울산울 중심으로 수입대체산업이 육성되었던 경남지역의 제조업 부가가치생산은 급증하여 1968년 전국의 12.6%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영남권의 비중은 35.7%로 증가하게 되었지만, 전통적 산업들이 주로 입지해 있었던 대구경북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위축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중화학공업에 의한 부가가치생산이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1968년 전국의 40.7%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대구경북지역은 겨우 3.6%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주로 기인했다.

이러한 중화학공업의 성장은 1970년대에 들

어오면서, 보다 활성화된다. 이 시기 선진국이 핵심중화학공업과 새로운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기존에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중화학부문들을 제3세계 국가들로 이전시키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적 분업관계의 재편에 대한 새로운 대응과 더불어 경공업제품의 수출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게 되었다(최병두, 1991). 이를 위해 대규모 중화학공단들이 원료와 제품의 수출입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과 용지 및 용수 등을 얻을 수 있는 수도권과 동남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제조업체수는 급속히 증가했지만 부가가치생산액은 기존의 비중에서 약간 증가한 반면, 영남권의 경우 제조업체수의 구성비는 별 변화가 없지만 부가가치생산액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여 1978년에는 전국 부가가치 생산액의 38.8%를 차지하게 되었다. 영남지역 내에서, 제조업체수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생산액으로 볼 때, 부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영남지역 발전의 전망과 과제: (1) 발전과정과 삶의 질

반면, 대규모 공장들이 조성된 경남지역의 비중은 사업체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대구·경북지역도 포항제철공단 등에 힘입어 중화학부문이 상당히 증가하지만, 기존의 경공업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다소 미진했다.

1980년대 국가경제는 경공업부문의 합리화와 중화학부문의 투자조정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재정비되었다(김건, 1991). 이 시기 산업구조조정은 한편으로 기존의 경공업들 가운데 국민경제에 필요하여 합리화시킬 업종들을 제외하고 가능한 퇴출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화

학부문의 과잉증복투자를 조정하여 산업구조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동안 취약했던 부품생산중소기업들이 집중 육성되어 대기업의 주력산업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또한 연구개발능력의 향상과 공장자동화의 촉진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제조업체수는 급증하게 되었고, 그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했다. 이에 따라 전국 제조업체 중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1983년 52.4%, 1988년 58.1%로 급증하게 되었고, 1970년대 말 다소 줄어들었던 부가가치 생

표 2. 지역별 제조업 증분류 부가가치생산 추이

(단위: 백억원)

구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1980	1990	1980	1990	1980	1990	1980	1990	1980	1990	1980	1990	1980	1990	1980	1990
제조업 계	1186	7092	219	825	87	576	190	1830	132	544	66	255	100	598	181	1255
전국비 %	100.	100.	18.5	11.6	7.3	8.1	16.0	25.8	11.1	7.7	5.6	3.6	8.4	15.4	15.3	17.7
음식료품	197	759	33	77	14	61	33	179	12	38	18	26	5	24	13	63
전국비 %	100.	100.	16.8	10.1	7.1	8.0	16.8	23.6	6.1	5.0	9.1	3.4	2.5	3.2	6.6	8.3
업종비 %	16.6	10.7	15.1	9.3	16.1	10.6	17.4	9.8	9.1	7.0	27.3	10.2	5.0	4.0	7.2	5.0
섬유 의복	231	847	50	21.2	10	25	34	180	32	96	34	121	18	83	23	37
전국비 %	100.	100.	21.6	25.0	4.3	3.0	14.7	21.2	13.9	11.3	14.7	14.3	7.8	9.8	10.0	4.4
업종비 %	19.5	11.9	22.8	25.7	11.5	4.3	17.9	9.8	24.2	17.6	51.5	47.5	18.0	13.9	12.7	2.9
목재 나무	21	131	2.0	5	8	52	2.2	37	2.2	10	0.4	1.6	0.6	3	2.2	9
전국비 %	100.	100.	9.5	3.8	38.1	39.7	10.5	28.2	10.5	7.6	1.9	1.2	2.9	2.3	10.5	6.9
업종비 %	1.8	1.8	0.9	0.6	9.2	9.0	1.2	2.0	1.7	1.8	0.6	0.6	0.6	0.5	1.2	0.7
종이 제품	53	329	25	147	0.5	4	10	72	2.3	14	1.8	8	1.6	9	3.4	19
전국비 %	100.	100.	47.2	44.7	0.9	1.2	18.9	21.9	4.3	4.2	3.4	2.4	3.0	2.7	6.4	5.8
업종비 %	4.5	4.6	11.4	17.8	0.6	0.7	5.2	3.9	1.7	2.6	2.7	3.1	1.6	1.5	1.9	1.5
화학 석유	43	1294	40	63	14	76	35	302	46	178	1.5	9	6	50	47	294
전국비 %	100.	100.	16.5	4.9	5.8	5.8	14.4	23.3	18.9	13.8	0.6	0.7	2.5	3.9	19.3	22.7
업종비 %	20.5	18.2	18.3	7.6	16.1	13.2	18.4	16.5	34.8	32.7	2.3	3.5	6.0	8.4	26.0	23.4
비금속광	68	351	8	15	4	15	12	85	4	11	0.4	6	6	45	7	37
전국비 %	100.	100.	12.2	4.3	5.9	4.3	17.6	24.2	5.4	3.1	0.6	1.7	8.5	12.8	9.6	10.5
업종비 %	5.7	4.9	3.7	1.8	4.6	2.6	6.3	4.6	3.0	2.0	0.6	2.4	6.0	7.5	3.6	2.9
1차 금속	92	523	6	18	9	57	4.5	40	11	49	2.3	12	38	187	17	73
전국비 %	100.	100.	6.4	3.4	10.1	10.9	4.9	7.6	12.0	9.4	2.5	2.3	41.3	35.8	18.5	14.0
업종비 %	7.8	7.4	2.7	2.2	10.3	9.9	2.4	2.2	8.3	9.0	3.5	4.7	38.0	31.3	9.4	5.8
조립금속	259	2732	46	254	24	262	55	903	20	137	6	67	24	194	68	719
전국비 %	100.	100.	17.8	9.3	9.3	9.6	21.2	33.1	7.7	5.0	2.3	2.5	9.3	7.1	26.3	26.3
업종비 %	21.8	38.5	21.0	30.8	27.6	45.5	28.9	49.3	15.2	25.2	9.1	26.3	24.0	32.4	37.6	57.3
기타제조	22	125	8.6	33	3.3	25	5.0	32	2.2	11	1.3	5	0.1	3	0.6	3
전국비 %	100.	100.	39.1	26.4	15.0	20.0	22.7	25.6	10.0	8.8	5.9	4.0	0.5	2.4	2.7	2.4
업종비 %	1.9	1.8	3.9	4.0	3.8	4.3	2.6	1.7	1.7	2.0	2.0	0.1	0.5	0.3	0.2	0.2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해당년도.

산액의 비중도 다시 늘어나게 되었다. 반면 영남지역의 사업체수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부가가치 생산의 비중도 1980년대 초 다소 늘어났지만 후반부에는 다시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한 중화학부문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생산의 비중이 다소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중화학부문이 상당히 증가하지만, 부산·경남지역에서 표준화된 중화학공업들이 서해안쪽으로 이전해가면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

1980년대 제조업의 입지 변화,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의 산업구조 변화의 비교에 있어 주요 특징들은 업종별 증분류에 관한 자료의 분석에서 잘 나타난다 (최병두, 1994). <표 2>에서 확인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시기 우리나라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 변화에서 전반적인 특징은 경공업부문에서 음식료품업 및 섬유·의복업의 퇴조(1980년에서 1990년 사이 각각 16.6%에서 10.7%, 19.5%에서 11.9%로 감소), 모든 지역들에서 조립금속업의 급성장(21.8%에서 38.5%로 증가), 그의 업종들의 평균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별 입지 변화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지역(인천은 예외)에서 제조업체들이 고지가,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으로 도시외곽으로 이전하면서, 그 주변 지역으로 수도권에서는 관목할 재집중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경남 및 경북지역에서는 약간 성장 또는 기존 비중의 유지 정도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술집약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립제조업이 급성장했을 뿐만 아니라(박삼욱, 1993) 모든 업종에서 구성비중이 증대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부가가치 생산의 비중이 1980년 41.8%에서 1990년 45.5%으로 증가한 반면, 영남지역의 경우는 40.4%에서 37.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영남지역 내부에서 제조업 부가가치의 생산 비중의 감소는 ①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전반적 퇴조에 따른 지역 경공업부문(음식료품업 및 섬유·의복산업 등)의 쇠퇴, ② 한계(포드주의적 산

업의 한계)에 달한 자본집약적 중화학부문(화학석유, 1차금속업 등)의 지역내 포화로 인한 현상유지와 일부 타지역(서해안) 이전, ③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조립금속업)의 상대적으로 미진한 성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각 지역별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1980년 지역핵심산업은 섬유·의복(구성비 24.2%), 화학석유(34.8%), 조립금속업(15.2%)이었지만, 1990년 섬유·의복, 화학석유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조립금속업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업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1980년 7.7%에서 5.0%로)으로 나타난다. 대구의 경우, 1980년 섬유·의복산업이 주축(51.5%)을 이루며 음식료품업(27.3%)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 업종들은 모두 사양화되는 산업들이었고, 특히 대구지역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섬유·의복업은 전국 비중에서도 서울과 경기지역보다 훨씬 낮아지게 되었다. 조립금속업의 성장이 지역경제의 상대적 침체를 어느 정도 억제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경북의 경우, 1980년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었던 업종들 중에서 섬유·의복업과 1차금속업은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으며 이로 인해 지역내 산업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각각 18.0%, 38.0%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각각 13.9%, 31.3%로 감소하게 되었다. 조립금속업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지역경제가 전국 평균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업종의 전국구성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경남의 경우, 섬유·의복업은 급속히 쇠퇴했으며, 화학석유업은 전국 평균이상 성장했지만 지역내 산업구성비에서는 오히려 감소했고, 반면 조립금속업이 상당히 성장하여 지역내 산업구성에서 매우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는 전국 평균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업종별, 지역별 산업구조 변화는 수도권에 비해 영남지역의 경제, 그리고 영남지역 내에서도 대구·경북지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하게 되었는가를 나타내 준

영남지역 발전의 전망과 과제: (1) 발전과정과 삶의 질

표 3. 지역별 하청관계 현황, 1991년

(단위: 10억원, %)

구 분		전국	영남권				영남권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그외 지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제조업 전체	위탁생산비:A	7,801	3,957	1,497	645	1,815	3,128	802	607	646	1,073	716
	수탁제조수입액:B	7,307	3,595	1,576	359	1,480	2,996	769	1,076	531	620	779
	B/A	0.94	1.17	1.17	0.56	0.81	0.96	0.96	1.77	0.82	0.58	1.09
섬유의복	위탁생산비:A	2,073	1,018	663	58	297	835	171	400	218	46	220
	수탁제조수입액:B	3,239	1,372	708	94	570	1,579	252	912	338	77	288
	B/A	1.56	0.91	1.07	1.62	1.92	1.89	1.47	2.28	1.55	1.30	1.30
조립금속	위탁생산비:A	3,344	1,698	341	384	973	1,456	255	161	210	830	190
	수탁제조수입액:B	2,009	928	225	178	525	903	246	86	127	444	178
	B/A	0.06	0.54	0.66	0.46	0.54	0.62	0.96	0.53	0.60	0.53	0.94

자료: 통계청, 1993,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

표 4. 도별 상위 4개 시군의 광공업 점유, 1992년

(단위: 개, 십억원)

경 기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남 도				
시군	사업체수		부가가치		시군	사업체수		부가가치		시군	사업체수		부가가치	
도총계	19,558	100.0	24,404	100.0	도총계	4,280	100.0	8,606	100.0	도총계	5,080	100.0	17,838	100.0
계	6,221	31.8	9,810	40.2	계	1,937	45.3	6,696	77.8	계	1,835	36.1	13,929	78.1
안산시	1,150	5.9	3,116	12.8	구미시	410	9.6	3,135	36.4	울산시	359	7.1	7,413	41.6
수원시	705	3.6	2,460	10.1	포항시	176	4.1	2,440	38.3	창원시	473	9.3	3,716	20.8
용인군	772	3.9	2,124	8.7	달성군	946	22.1	791	9.2	양산군	728	14.3	1,540	8.6
부천시	3,594	18.4	2,110	8.6	경산군	405	9.5	330	3.8	울산군	275	5.4	1,260	7.1

주 1) 도별 순위는 부가가치에 따름.

2) 5개 시군에의 집중도에서 각 도별 시군수(경기도 36개, 경북 34개, 경남 29개)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자료: 통계청, 1994, 『지역통계연보』, 131-7.

다. 영남지역 산업구조 변화의 이러한 특성에 덧붙여, 몇가지 주요 요인들이 현재 지역경제의 침체에 관한 설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에 관한 모색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청관계가 영남지역의 경제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1980년대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집중 육성되지만,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에 제품 또는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기업들이었다. 전국 중소제조기업들의 하청의존도는 1982년 34.6%였으나 1991년에는 75.7%로 급증하게 되고, 특히 기업의 규모가 적을수록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병두, 1994). 이러한 하청관계에서 지역적 관계는 각 지역의 위탁생산비와 수탁제조수입액의 비율, 즉 타지역 하청의존도를 나타내는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김형기, 1995; 이성진, 1995) (표 3 참조). 전국적으로 섬유·의복업은 조립금속업에 비해 타지역 하청의존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며, 이는 섬유·의복업이 외국기업과의 하청관계를 맺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볼 때, 타지역하청의존도는 수도권에 비해 영남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업종별로 섬유·의복업에서, 지역적으로는 대구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는 영남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에 하청계열화되어 포섭, 지배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영남지역의 제조업들은 몇개 시군에 지리적으로 집중 분포되어 있다. 수도권의 경기도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에서 광공업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서울에 접해 있는 부천시에 중소기업의 업체들이 가장 많

표 5. 첨단산업의 지역적 성장잠재력

(단위: %)

구 분	기술지도 건수	이공계 대학수	고급두뇌 공급도	연구 기관수	연구 종사자수	첨단산업 고용자수	특허건수	성장잠재력 종합
수도권	55.2	37.9	42.2	68.6	64.2	57.7	74.9	57.3
서울	20.2	19.4	20.5	28.6	19.2	25.9	65.4	28.5
인천	1.5	4.0	5.4	6.5	7.9	7.7	1.2	4.9
경기	33.5	14.5	16.3	33.5	37.1	24.1	8.3	23.9
영남권	31.1	25.0	28.4	20.7	17.1	35.5	16.5	24.9
부산	10.8	8.9	11.5	3.0	0.7	7.4	4.8	6.7
대구	3.0	6.5	7.8	3.3	0.7	3.8	0.9	3.7
경북	11.9	4.0	3.5	4.9	2.8	5.8	5.4	5.5
경남	5.4	5.6	5.6	9.5	12.9	18.5	5.4	9.0
그외지역	13.7	37.1	29.4	10.7	18.7	6.8	8.6	17.8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대구직할시, 1993, 『대구장기발전구상』, 161쪽 재인용

이 분포되어 있고 반월공단이 입지해 있는 안산시에도 상당수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외 순위별로 수원시, 용인군 등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 4개 시군이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로 31.8%, 부가가치로는 40.2%를 차지한다 (표 4 참조). 반면 경상북도에서 업체들은 대구시에 인접한 달성군과 경산군, 그리고 구미시와 포항시에 45.3%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 시군들에서 생산되는 제조업 부가가치는 도 전체의 77.8%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부산에 인접하여 중소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는 양산군과 그리고 창원시, 울산시, 울산군 등에 경남 전체의 36.1% 업체들이 입지해 있어 경북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집중도를 보이지만, 이 4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는 78.2%에 달하여 경북지역에 비해 오히려 다소 높은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다. 영남지역내에서 제조업의 이러한 지리적 집중현상은 한편으로 몇개 시군에 집중 입지한 대규모업체들이 지역경제를 좌우하며,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집중으로 당분간 집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지역내 경제의 합리적 공간분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집적의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앞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첨단 기술산업의 성장잠재력이 영남지역에서는 상대

적으로 약하다.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는 점차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이행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박삼욱, 1989; 임휘철, 1992; Malecki, 1991). 그러나 이러한 첨단산업과 관련하여 연구기관, 연구종사자 등을 지표로 한 성장잠재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권오혁, 1995), 영남지역에서 첨단산업의 성장잠재력은 수도권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표 5 참조). 세부내용으로 보면, 영남지역에서 첨단산업고용자수의 비중은 다소 높지만, 이들은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종사자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중화학부문에서 표준화된 기술산업들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남지역내부에서, 경남지역에 연구기관과 연구종사자 및 첨단산업고용자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산지역에 첨단산업고용자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영남지역의 대도시인 부산 및 대구는 서울에 비해 연구기관수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을 뿐만 아니라, 연구종사자수와 관련시켜 볼 때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특히 대구는 모든 면에서 첨단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생산자서비스업부문에서 영남지역의

영남지역 발전의 전망과 과제: (1) 발전과정과 삶의 질

표 6. 지역내총생산 주요지표(1992)

(단위: 10억원, %, 천원)

지역	지역내 총생산		1인당지역내 총생산		산업별 생산구조								성장율	
	총 생산액	전국 비중	1인당 생산액	수준 (서울=100)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전기수도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	도소매음식숙박	정부서비스	1990	1992
서울	61,152	25.5	5,762	100.0	0.6	12.5	10.1	76.8	10.8	33.1	22.4	6.0	14.8	5.3
인천	11,935	5.0	6,116	106.1	1.0	48.6	14.8	35.6	8.1	13.6	7.3	3.8	12.0	6.0
경기	38,225	15.9	5,740	99.6	5.6	45.6	18.7	30.1	3.5	12.1	6.5	4.7	15.1	6.3
부산	16,833	7.0	4,457	77.4	3.0	25.3	12.7	59.0	10.8	20.2	17.9	6.2	10.3	1.3
대구	9,307	3.9	4,180	72.5	0.5	24.7	15.0	59.8	8.2	22.3	18.8	6.5	15.5	3.3
경북	16,051	6.7	5,752	99.8	17.6	37.0	16.4	29.0	4.8	9.1	5.3	7.4	7.3	5.7
경남	29,294	12.2	7,894	137.0	7.5	54.4	15.5	22.6	4.3	7.1	5.5	4.6	11.1	7.2

자료: 통계청, 1994, 「지역통계연보」.

경제구조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최근 탈제조업화 경향에 따라,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부동산업 등 비제조업부문, 특히 생산자서비스업들이 지역생산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발전을 추동하고 있다 (Daniels, 1991; 신성일, 1992; 권오혁·한표향, 1994). 사실 탈제조업화 경향에 따라 광공업이 지역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도시들에서는 10-15% 정도 수준으로 낮으며,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 가운데 금융·보험·부동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서비스업들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국의 지점망들을 통해 지역경제를 통제하고 있다. 영남지역의 대도시에도 이러한 서비스업들이 지역경제에서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서울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서울의 금융, 보험, 부동산업은 약 20조원에 달하며 지역총생산의 33.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부산과 대구의 경우 지역경제에서 각각 20.2%, 22.3%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액으로는 각각 3.4조원, 2.1조원 정도로 서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액수이다 (표 6 참조). 이와 같은 지역제조업 및 전체 산업별 생산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부산과 대구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서울의 75% 안팎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영남지역의 대도시

와는 달리, 영남지역은 대규모 중화학공업의 기여에 따라 1인당 지역생산이 서울의 1.37배로 높고, 경북지역도 대체로 수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성장잠재력과 생산자서비스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구조가 보다 고도화될 경우, 영남지역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수도권지역과는 점차 큰 차이를 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자본의 흐름과 관련되는 금융활동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하다. 생산자서비스업의 수도권 집중과 더불어 특히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금융관련활동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자본의 회전율도 매우 빠르다. 전국 예금은행점포들 중 38.3%는 서울에 입지해 있으며 인천, 경기를 합칠 경우 수도권에 54.2%가 집중되어 있고, 이들이 취급하는 예금 및 대출금도 각각 65.2%, 60.4%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참조) (최용호, 1992; 강승구, 1995). 반면 영남지역에 입지한 은행점포수는 25.3%이며, 이들이 취급하는 예금 및 대출금은 각각 21.4%, 23.2%를 차지한다. 은행예금에 대한 대출율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비해 영남지역이 전반적으로 높다. 이러한 점에서 영남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예금/대출관계를 통해 서울로 이전해 간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영남지

표 7. 1993년 지역별 금융관계 현황

(단위: 개, 조원, %)

구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은행점포수	5,328(100.)	2,038(38.3)	197(3.7)	650(12.2)	446(8.4)	302(5.7)	216(4.1)	378(7.1)
은행예금	115.7(100.)	59.0(51.0)	4.3(3.7)	12.1(10.5)	9.1(7.9)	6.2(5.4)	3.3(2.9)	6.0(5.2)
은행대출 예대출 ¹⁾	115.1(100.)	54.4(47.3)	4.4(3.8)	10.7(9.3)	9.1(7.9)	6.5(5.6)	4.1(3.6)	7.0(6.1)
	91.3	86.9	100.4	84.1	95.9	100.4	98.5	101.4
요구불예금 회전율 ²⁾	55.4	82.9	15.7	37.9	27.0	24.8	15.0	18.8
어음교환액	5,430(100.)	4,652(85.7)	76(1.4)	94(1.7)	167(3.1)	102(1.9)	29(0.1)	64(1.2)
어음부도율	0.13	0.07	0.30	0.53	0.48	0.51	0.57	0.44

주 1) 예대출 = 예금은행 금융자금대출액/예금

2) 일반은행 현행으로,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1994, 『지역통계연보』.

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비중에 비해 예대출금의 비중이 훨씬 낮다는 사실은 지역내 잉여로 남지 아니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서울로 이전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요구불예금의 회전율과 어음교환을 등으로 볼 때, 자본의 회전율은 서울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지방의 대도시라고 할지라도 부산과 대구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나며, 어음부도율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영남지역에서 자본의 이윤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이 거의 발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아주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점으로, 영남지방에 위치한 각 지역들의 경제는 역외의 서울이나 수도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반면, 지역내에서는 어떤 상호보완적이고 체계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된 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다. 즉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은 흔히 영남지역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처럼 인식되지만, 기업간 관계나 노동분업에 있어 실제 거의 아무런 사회공간적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²⁾.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시설의 조성에 있어서도 행정구역 및 예산집행의 분리로 인해 실질적인 광역적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해 보다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예로 본사/분공장 및 하청관계, 원료 및 제품 유통관계, 도로 항만 비행장 등 사회간접시설의 유기적 접속, 정보통신 및 연구개발기

능의 공유 등이 지역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 영남지역의 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지역 간에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인 보완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분명 있다고 할 수 있다.

3. 영남지역의 도시화과정

1960년대 이후 압축적 산업화과정은 급속한 도시화과정과 병행되었다. 즉 농업에서 도시 제조업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은 농촌으로부터 대구 모 인구유출과 이에 따른 도시인구의 집중을 유발했다. 1960년 전국의 인구는 수도권에 20.8%, 영남권에 32.1%, 그외 지역에 47.1% 분포해 있었고, 도시화율은 35.8%에 불과했다 (표 8 및 표 9 참조). 이 이후 도시로의 인구이동, 특히 제조업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던 수도권과 영남권의 대도시 및 공업도시들의 인구이동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전국인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28.3%, 1980년 35.5%, 1990년 42.7%, 그리고 1993년에는 44.6%에 달하게 되었다. 영남권의 인구 비중은 비교적 큰 변화가 없는 것 처럼 보이지만, 1975년을 기점으로 완만하지만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1960년 이후 1993년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2,009만명 정도 증가했는데, 이 성장인구중 수도권이 1,489만명(74.1%), 영남권이 495만명(24.6%)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외 지

영남지역 발전의 전망과 과제: (1) 발전과정과 삶의 질

표 8. 지역별 인구변화 추이

(단위: 천명, %)

지역	196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3	
	인구수	구성	인구수	구성	인구수	구성	인구수	구성	인구수	구성	인구수	구성	인구수	구성
전국	24,989	100.	31,466	100.	34,707	100.	37,436	100.	40,448	100.	43,520	100.	45,077	100.
수도권	5,198	20.8	8,894	28.3	10,929	31.5	13,298	35.5	15,820	39.1	18,700	42.7	20,085	44.6
서울	2,449	9.8	5,536	17.6	6,890	19.9	8,364	22.3	9,639	23.8	10,628	24.4	10,925	24.2
인천	-	-	-	-	-	-	-	-	1,387	3.4	1,818	4.2	2,144	4.8
경기	2,749	11.0	3,358	10.7	4,039	11.6	4,934	13.2	4,794	11.9	6,154	14.1	7,016	15.6
영남권	8,021	32.1	9,559	30.4	10,592	31.6	11,437	30.5	12,037	29.8	12,572	28.9	12,967	28.8
부산	1,149	4.6	1,880	6.0	2,453	7.1	3,160	8.4	3,515	8.7	3,798	8.7	3,868	8.6
대구	-	-	-	-	-	-	-	-	2,030	5.0	2,229	5.1	2,315	5.1
경북	3,848	15.4	4,559	14.5	4,859	14.0	4,955	13.2	3,011	7.4	2,866	6.6	2,878	6.4
경남	3,024	12.1	3,120	9.9	3,280	9.5	3,322	8.9	3,517	8.7	3,679	8.5	3,906	8.7
그외 지역	11,769	47.1	13,013	41.4	13,186	38.0	12,701	33.9	12,555	31.0	12,348	28.4	12,025	26.7

자료: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해당년도 및 「지역통계연보」.

표 9. 지역별 도시화율

(단위: 만명, %)

연도	전국		수도권			영남권				충남북	전남북	강원	제주	
	인구	도시 인구	도시 인구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1960	249.9	89.5	35.8	56.6	100.	17.9	30.2	100.	22.4	13.6	10.5	15.6	13.3	24.1
1970	314.3	156.5	49.8	72.5	100.	27.1	41.3	100.	30.5	21.6	16.4	20.5	20.5	29.0
1980	374.5	257.4	68.7	80.8	100.	48.2	59.6	100.	46.1	41.3	28.9	30.9	32.3	36.3
1990	435.2	360.1	82.8	88.1	100.	73.3	74.0	100.	65.3	59.2	48.6	51.9	48.5	61.3

주: 도시화율은 시급 이상 인구비율임.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각년도.

역에서 순 인구증가는 26만명 정도로 이는 자연 증가율 보다 훨씬 낮은 것이고, 전남북지역에서는 인구의 절대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990년 이후 영남지역의 인구는 절대적으로 증가했다고 할지라도, 경남지역을 제외하고 그 외 지역들의 인구구성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영남지역의 인구구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지역의 인구비중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면서 다소 증가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수도권에 인구집중의 가속화로 인해 다시 감소하고 있다. 영남지역 내부에서도 도시로의 인구가동이 급속히 추진되었으며, 이 지역의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로의 인구집중현상이 두드러졌고, 그 외 지역공업도시들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도시화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도시화율은 아직 수도권에 비해 낮은 편이다(물론 여기서 권역의 면적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각 지역별로 볼 때, 부산의 인구는 1960-70년대에 증가율이 높았으며, 최근에는 다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부산은 서울과 더불어 내부 인구의 과밀과 이에 따른 여러가지 대도시문제들의 심화로 인해 외곽지역으로의 인구가동현상을 나타내면서, 자체 인구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인구 비중은 1980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감소했지만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감소율이 다소 줄어들었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는 1980년대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인구비중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경북지역의 인구비중은 경남지역과는 달리 1980년대 이후에

표 10. 권역별 SOC 및 총자산의 구성비 추이와 국토개발비 투자실적 (단위: 10억원, %)

구 분	1968년		1977년		1987년		국토개발비투자(82-89)	
	SOC	총자산	SOC	총자산	SOC	총자산	투자실적	구성비
전 국	765.3	3,028	6,461	33,389	64,189	487,747	104,399	100.0
수 도 권	21.0	36.7	32.6	45.0	31.7	43.9	41,459	39.7
영 남 권	37.5	30.6	29.3	31.6	32.0	30.8	27,603	26.4
그외지역	30.2	24.6	29.5	19.2	29.6	20.9	23,713	22.8
기 타	11.3	8.1	8.6	4.2	6.7	4.4	11,624	11.1

자료: 김덕현(1992)에서 재인용.

소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성비의 변화 및 도시화율에 있어 지역적 특성은 그 자체로서 주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도시화와 관련된 여타 다른 지표들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사실 도시화과정은 단순히 인구의 집중만으로 분석되기 보다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간접시설의 조성 및 지역총자산(고정자산)의 정도 그리고 도시의 중추관리기능의 조성 여부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표 10>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60년대 권역별 현황을 보면 사회간접시설은 영남권에 가장 많이 조성되어 있었고 수도권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총자산은 수도권에 가장 많이 누적되어 있었고 영남권의 비중도 상당했다. 그 이후 수도권의 사회간접시설과 총자산의 비중은 급속히 증가한 반면, 영남권에서 사회간접시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줄어들었고 총자산의 비중은 다소 증가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역별 특성은 대체로 지속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남권의 경우 사회간접시설 비중은 다소 높아졌지만 총자산의 비중은 오히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80년대 제 2차 국통종합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른 국토개발비투자실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1982년에서 1989년에 이르기까지 투자액이 계속 증가하여 이 기간동안 투자실적의 39.7%를 차지한 반면, 영남권의 경우 년투자액은 대체로 초기수준에 머물면서 이 기간 동안 투자실적의 26.4%를 점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이 전적으로 담당했던 교통시설에 대한 권역별 투자실적은 대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책으로서 지하철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던 서울과 부산에 집

표 11. 중추관리기능의 대도시간 분포 (1990, 전국=100)

도시명	중앙행정기능	경제기능	정보기능	국제기능
서울	100.0	76.1	93.6	92.7
부산	0	3.5	0.9	2.6
대구	0	3.0	0.9	0.4
광주	0	1.6	0.7	0
대전	0	2.8	0.5	0

자료: 대구직할시, 1993, 『대구장기발전구상』, p.138.

중되었다.

지역별 사회간접시설과 지역총자산의 규모는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물적 토대의 조성 정도를 나타내며, 도시의 중추관리기능의 크기는 다른 도시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도시의 성장잠재력뿐만 아니라 배후지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를 말해준다. 중앙행정기능뿐만 아니라 경제·정보·국제기능면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중추관리기능의 지역적 분포를 나타내는 <표 11>은 이 기능들이 서울에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반면 부산과 대구 등 지방의 대도시들은 그 인구수나 산업생산액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을 말해 준다. 이러한 중추관리기능의 서울 집중은 지방의 모든 도시와 지역들, 심지어 부산과 대구와 같은 대도시들도 서울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할지라도 개선되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영남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추진되어온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상품 생산 증대 및 이를 위한 물적 토대 확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국가의 경제성장전략에 의해 추동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국토공간을 효율화시키면서, 총량적으로 상당한 사회적 부를 축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영남지역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분명 더많은 기업들이 입지했고 더높은 생산성을 보였지만, 국가경제의 지리적 구조에 내재된 문제점, 즉 수도권에 의존하는 불균등한 지역성장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과연 향상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 이에 따라 그 동안의 총량적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어느정도 기여했는가는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의 절대적 개선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역간 및 지역내 계층간 격차의 해소 여부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삶의 질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들에서는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지표들에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면, 이는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종사상의 지위와 소득수준, 생활수단과 복지시설, 자원이용과 생활환경 등이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1) 종사상의 지위와 소득수준

지역주민의 생활에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는 어떠한 산업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1960년대 이후 추진된 산업화·도시화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취업은 농업부문에서 공업 및 서비스업부문으로, 주거지는 농촌에서 도시로 급속하게 전환되게 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개별 주민들의 소득원뿐만

아니라 생산의 사회적 관계 및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았다. 즉 과거 농촌에서 자영이나 소작으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도시로 이전하여 새로운 산업부문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근대화된 공업 및 서비스업종에 취업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소득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은 이러한 직업전환을 통해 자신의 노동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생산수단 없이 기업적 생산활동에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임금노동자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생산관계 즉 자본/노동관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수단들을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통해 얻게 된 소득으로 상품화된 생활수단들을 구입, 소비하는 생활양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백옥인, 1989).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전환과정은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장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로 인해 사회공간적 이동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최근 농업시장의 개방과 탈제조업화에 따라 현재에도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89년에서 1992년 사이 전국 총고용자수는 100만명 정도 증가했으며³⁾, 농업 및 제조업 종사자수는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사회간접시설과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표 12 참조). 이러한 종사업종의 전환을 종사상의 지위로 볼 때, 제조업부문에서는 중소기업체의 자영업주 및 가족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상시고용자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사회간접시설 및 서비스업부문에는 대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영세자영업주 및 가족노동종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상시고용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양부문 모두에서 일시고용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관계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홍형, 1993). 그러나 영남지역의 경우, 이러한 추세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제조업부문에서 부산의 경우 서울에 비해 자영업 비중은 상

표 12. 산업별 종사자 및 지위

(단위: 만명, %)

구 분	전 국		서 울		인 천		경 기		부 산		대 구		경 북		경 남		
	1989	1992	1989	1992	1989	1992	1989	1992	1989	1992	1989	1992	1989	1992	1989	1992	
총고용자	1710	1810	392	423	61	66	225	242	141	158	84	86	128	129	149	162	
제조업	총계	431	413	122	107	28	26	70	75	56	49	32	29	20	23	40	41
	(%)	25.2	22.8	31.1	25.3	45.9	39.4	31.1	30.1	39.7	31.0	38.1	33.7	15.6	17.8	26.8	25.3
	자영	10.1	11.9	12.4	15.9	5.4	7.8	8.0	10.0	6.6	9.2	11.9	15.4	8.9	8.6	5.5	6.3
	가족	3.2	3.9	3.2	5.4	1.8	1.2	2.3	2.8	2.1	3.9	4.7	4.9	4.4	3.0	1.2	1.7
	상시	80.7	78.3	79.1	73.8	87.7	86.8	85.7	83.1	86.4	80.8	76.7	73.4	79.8	79.3	89.1	86.6
일시	6.0	5.9	5.3	4.9	5.1	4.3	4.1	4.0	4.6	6.1	6.9	6.6	7.4	9.1	4.2	5.1	
SOC 서비스업	총계	856	1014	268	312	32	39	105	126	79	106	50	56	39	48	57	72
	(%)	50.1	56.0	68.4	73.8	52.5	59.1	46.7	52.1	56.0	67.1	59.5	65.1	30.5	37.2	38.3	44.4
	자영	30.3	28.1	28.9	27.3	29.8	28.4	31.5	27.2	29.1	27.6	30.8	29.5	35.3	30.4	33.9	30.7
	가족	9.6	8.7	7.8	7.9	11.5	7.7	11.2	7.5	9.0	10.5	10.9	9.1	9.6	9.1	10.0	9.0
	상시	47.6	53.0	52.3	55.9	46.6	53.5	45.6	54.7	47.8	49.7	45.2	50.4	43.4	50.7	43.5	49.1
일시	12.4	10.2	11.0	8.9	12.1	10.5	11.4	10.5	14.2	12.2	12.9	11.0	11.7	9.7	12.6	11.1	

자료: 대한통계협회, 1992, 1994, 『지역통계연보』

표 13. 지역별 제조업 생산/사무직 종사자 구성 및 임금 추이 (단위: %, 만원)

구분	직종	연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북	대전 충청남북	강원 제주
종사자구 성비	생산직	1981	81.5	78.9	78.9	83.5	85.5	79.9	84.7	77.7
		1989	76.0	71.5	72.5	77.2	80.4	78.7	79.9	79.2
	사무, 기타직	1981	16.9	19.3	19.2	15.5	12.6	16.8	13.3	16.5
		1989	22.1	25.3	25.9	18.7	17.7	18.2	18.5	18.9
종사자 1인당 연급여액	평균	1981	202.2	202.9	201.8	208.5	188.6	197.2	179.6	166.9
		1989	545.7	494.9	565.7	585.1	538.5	506.9	488.3	467.3
	생산직	증가	2.70	2.44	2.80	2.81	2.86	2.57	2.72	2.80
		1981	180.1	175.2	183.3	185.8	178.6	182.7	162.7	158.2
	사무, 기타직	1989	515.7	469.6	531.1	550.0	512.5	472.7	461.1	440.6
		증가	2.86	2.68	2.90	2.96	2.87	2.59	2.83	2.79
	사무, 기타직	1981	326.9	336.0	325.0	345.5	284.4	305.9	312.5	266.6
		1989	700.5	630.4	698.7	767.0	713.2	712.8	648.2	653.1
	증가	2.14	1.88	2.15	2.22	2.51	2.33	2.07	2.45	

주: 종업원총수에서 사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수가 빠짐.

자료: 통계청,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각년도.

당히 낮고 일시고용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경북과 경남에서도 제조업종사자 가운데 일시고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또한 그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간접시설 및 서비스업종에서도 소규모자영업과 일시고용의 비중이 수도권과 비교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삶의 질 문제를 직접 검토해 보기 위해, 우

선 제조업부문에서 근로자의 종사직종과 급여액을 살펴 볼 수 있다. 영남지역 근로자의 직종을 수도권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생산직 종사자의 구성비율이 높으며, 1980년대의 변화과정에서 사무, 기타직으로의 변화율도 상대적으로 완만했다(표 13 참조). 이러한 점은 직종간 급여액의 차이와 관련시켜 볼 때, 어떤 문제점을 내포한다. 즉 1981년 종사자 1인당급여

영남지역 발전의 전망과 과제: (1) 발전과정과 삶의 질

액을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사무, 기타직은 생산직에 비해 1.8배 높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1989년에는 그 격차가 상당히 줄었지만 1.36배의 급여를 받았다⁴⁾. 물론 생산직이든 사무, 기타직이든 영남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1인당 년급여액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1980년대에 걸쳐 인상율도 높았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산업에서의 근로자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1987년 노동운동의 고조 이후 근로자임금은 1988년에서 1990년 2년 사이 38% 증가할 정도로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4 참조). 그러나 근로자 임금수준의 지역간 격차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며, 지역내 계층간에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서울의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 외곽의 인천과 경기지역은 89% 및 80% 정도의 수준이고, 특히 영남지역의 부산과 대구의 임금수준은 75%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영남지역의 공업도시들에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지역 대도시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근로자 임금수준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더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영남지역에서 주로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지역내 대도시의 일반 근로자들이나 수도권의 조립금속업 근로자들에 비해 아직 높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생산의 변화 추이와 관련시켜 볼 때⁵⁾, 경남북지역과 인천, 경기지역의 임금 수준의 차이는 앞으로 역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임금 수준의 격차는 개별 지역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지역의 임금수준은 지역내 근로자들의 임금을 산술적으로 평균한 것으로, 지역 전체 근로자 중에서 이 수준 이하의 근로자가 대체로 75%를 차지한다 (표 14 참조). 특히 영남지역의 대도시 부산과 대구에서는 중간계층(30-60만원)의 비율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과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하위계층(30만원 이하)의 근로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상위계층(60만원 이상)의 근로자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⁶⁾.

2) 생활수단과 복지시설

지역개발과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을 통해 일상생활을 보다 안락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지역개발이 단지 경제성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지 못하거나 생활상의 위화감을 오히려 조장한다면, 이는 정당한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우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주요 생활수단으로서 주택과 토지문제를 고찰해 볼 수 있다. 1990년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율은 77.5%이며, 농촌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도시 지역일수록 낮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수는 주택보급율보다 훨씬 낮아서, 대구의 경우 자가보유율은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36.3%에 불과하며, 부산

표 14. 전체 근로자 임금수준(서울=100)의 변화와 임금등급별 구성비(1990) (단위: 천원, %)

구분	연도 및 임금등급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임금변화	1988	447	88.4	505	100.0	450	89.2	397	78.7	366	72.4	386	76.5	449	88.8	474	93.8
	1990	617	88.7	695	100.0	616	88.6	564	81.1	529	76.1	532	76.6	621	89.4	656	94.5
임금등급 별 구성	300이하	21.7	18.2	18.3	24.0	27.8	26.5	21.8	16.4								
	300-600	51.9	49.7	55.6	54.6	53.7	54.2	51.0	52.0								
	600-1000	21.1	23.4	23.1	18.4	15.6	15.9	22.9	27.4								
	1000이상	5.3	8.7	3.0	3.0	2.9	3.4	4.3	4.2								

자료: 대한통계협회, 1992, 『지역통계연보』.

표 15. 주택관련 지표현황 (1990)

구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가구수(천):A	11,354	2,815	485	1,619	993	597	789	992
주택수(천):B	8,798	1,692	402	1,409	611	380	712	834
자가수(천):C	5,667	1,071	247	758	392	217	518	541
주택보급율:B/A	77.5	60.1	82.9	87.0	61.5	63.7	90.2	84.1
자가보유율:C/A	49.9	38.0	50.9	46.8	39.5	36.3	65.7	54.5
주택당 가구원수	5.87	7.23	5.72	5.93	7.23	7.41	4.48	5.27
방 8개이상 주택(%)	8.2	14.0	7.1	8.2	13.1	18.1	3.2	7.0

자료: 통계청, 1994, 「지역통계연보」

표 16. 도시별 토지소유 비율 및 아파트규모별 세대구성

(단위: %)

구분	토지소유비율(1989)				아파트규모별 세대구성(1992)				
	토지소유율	상위 5%	상위 10%	상위 25%	20평 미만	20 - 30	30 - 40	40 - 60	60평 이상
전국	-	65.2	76.9	90.8	46.9	34.4	18.9	5.4	0.5
서울	28.1	57.7	65.9	77.8	34.3	31.5	23.3	9.9	0.9
부산	33.1	72.3	81.4	89.5	42.4	33.6	17.5	5.6	0.6
대구	38.3	72.6	82.4	92.4	37.2	32.6	19.6	9.2	1.4
인천	30.1	64.2	77.8	88.8	41.7	37.2	18.0	3.1	0.1

자료: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1989, 「연구보고서」; 통계청, 1994, 「지역통계연보」.

도 39.5% 정도이고,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15 참조). 이러한 사실은 지역산업의 발달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역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택보유율에 비해 자가보유율이 매우 낮음은 1가구 2주택이상 소유가구가 많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특히 대구지역에서 심각한 이러한 주택소유 편중현상은 높은 전세, 월세로 인해 무주택서민들의 생활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며, 주택소유관계를 통한 수입의 차별화로 계층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위화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

생활수단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이러한 생활의 질의 열악성과 불균등은 주택의 규모와 토지소유관계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보급율 및 자가보유율이 대도시지역, 산업화된 지역에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주택당 가구원수(즉 1주택 다가구수)는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부산과 대구의 경우 주택당 가구원수는 서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자가보유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주택당 가구원수는 가장 많지만, 오히려 대구규모의 주택이 가장 많이 조성되어 있다. 즉 대구지

역에서는 방 8개 이상의 주택이 전체 주택수의 18.1%를 차지할 정도로 주택규모가 크며, 아파트규모별 분포에 있어서도 40평이상(특히 60평 이상) 대형아파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대구와는 달리 부산의 경우 20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의 비중이 24.2%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중간규모의 아파트수에 비해 큰 규모 또는 작은 규모의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규모의 주택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택문제와 관련하여, 토지문제 역시 영남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별 전체 가구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영남지역의 부산과 대구가 서울과 인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토지소유자들 중에서 토지의 편중도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산 및 대구에서 토지소유가구 중 상위 5%가 지역의 전체 토지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이상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표 16 참조).

이러한 주택·토지문제 외에도,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준 또는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표 17. 지역별 복지수준 현황

지역	1인당 총생산 (만원)	1인당 저축액 (백만 원)	1인당 보험료 (천원)	재정 자립도 (%)	사회복 지비/ 일반회 계(%)	생활보 호대상 (총인 구비)	승용차 보급 (대/ 1만명)	교통사 고사망 (백만 명당)	전화 가입자 (수/ 1백명)	고교 진학률 (%)	의사수 (명/ 1만명)	도서관 장서수 (권/ 인구)
서울	576	30.3	367	85.8	17.1	1.7	1,261	76	52.6	40.7	13.5	2.67
부산	446	9.0	134	72.7	17.0	2.9	817	86	37.6	45.7	10.0	1.50
대구	418	9.2	164	76.8	17.6	2.5	1,167	156	41.7	59.8	11.2	1.72
경북	575	5.0	55	36.8	15.6	8.5	823	429	32.8	50.1	5.0	2.33
경남	789	5.8	78	55.3	16.5	5.7	900	314	37.0	48.3	5.7	1.42

주: 기준년도는 개인소득 1992년, 고교진학률 1994년, 그의 1993년임.

자료: 통계청, 1994, 『지역통계연보』.

지표들이 고려될 수 있다 (김중환, 1995). 지역 주민들의 1인당 저축액(기업과 가계 예금을 합친 것임)이나 보험료로 볼 때, 부산과 대구의 시민들은 서울 시민들에 비해 1/3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경남·북지역 주민들은 1/6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⁷⁾. 그리고 이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서울과 비슷하지만 경남·북에서는 다소 낮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중도 서울에 비해 부산과 대구에서 다소 높게, 경남·북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승용차보급율은 대구지역에서 다소 높지만, 경남·북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교통체증이 심각한 부산에서는 아주 낮게 나타난다.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구에서는 서울과 부산에 비해 2배 정도 높고, 경남·북에서는 5-6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화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전화보급율도 대구, 부산, 경남, 경북 순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며, 반면 지역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고교진학율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의료수준 및 문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의사수 및 장서보유율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몇가지 주요 지표들로 살펴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물론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가시적으로 드러

난 양상으로 볼 때 상당한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3) 자원이용과 생태환경

그동안 영남지역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지역발전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 향상과 다소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정(正)의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자원이용 및 생태환경과의 관계에서는 분명 심각한 부(負)의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에 따른 영향은 사회공간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친다 (최병두, 1994). 영남지역에 특히 밀집된 대규모 공단들의 조성 과정에서 지역의 자연환경은 크게 훼손되었으며, 자원다소비형 중화학공업들은 엄청난 용지, 용수, 전력들의 소비를 촉진시켰다. 뿐만 아니라 공해에 민감한 섬유, 제철,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악성오염물질들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누적, 확산되게 되었다. 즉 영남지역의 개발과 경제성장은 자원이용과 생태환경의 측면에서 엄청난 희생물 요구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환경속에서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에게 점점 가중되는 고통을 주게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을 억제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보급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이다.

자원이용과 관련하여, 1인당 석유제품 및 전력소비량은 서울에 비해 영남지역의 대도시들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며, 경남·북에서는 훨씬 높

표 18. 주요 자원이용 및 환경시설 현황

지역	1인당 석유제품소비 (Bbl)	1인당 전력판매량 (Mwh)			도시 가스		1인당 1일 급수량 (ℓ)	상수도 보급율	하수도 보급율		
		총판매	가정용	서비스	양 (10만㎡)	호수 (천호)			처리 면적	처리 인구를	수세식 인구를
부산	8.5	2.2	0.55	0.48	69	107	428	98.1	33.5	50.6	63.7
대구	7.7	2.4	0.56	0.45	49	85	423	98.2	51.1	61.6	76.4
경북	10.8	4.5	0.48	0.34	24	18	324	58.4	19.7	10.6	34.9
경남	29.1	5.1	0.55	0.40	124	86	308	66.9	2.4	1.0	53.5

주: 도시가스보급은 1991년, 그의 1993년 자료임.

자료: 통계청, 1994, 「지역통계연보」; 환경처, 1992, 「환경연감」.

표 19. 환경오염관련 지표 현황(1993)

지역	폐 기 물			오염배출시설업소					대기오염(SO ₂)		배출부과금	
	일 반 (톤/일)	1인당 (kg/일)	특 경 (톤/년)	합계 (개소)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농도 (ppm)	배출량 (천톤/년)	건수	금액 (억원)
전국	62,940	1.40	8,202	87,827	27,452	28,834	28,365	3,176	-	1,572	3,789	13.5
서울	16,021	1.47	169	4,487	1,200	3,341	1,092	54	0.023	56	285	4.4
인천	2,356	1.10	290	6,720	2,121	1,936	2,604	59	0.021	68	176	6.7
경기	9,275	1.32	1,130	16,991	4,986	5,081	6,291	633	0.034	147	1,007	33.7
부산	5,047	1.30	262	6,696	2,211	2,297	2,161	27	0.028	135	270	5.2
대구	3,716	1.61	425	5,786	1,544	1,770	2,287	185	0.035	31	308	38.6
경북	3,580	1.24	911	7,781	2,544	2,170	2,725	342	0.025	202	213	7.5
경남	5,388	1.38	1,638	10,694	3,583	3,110	3,560	441	0.030	315	394	13.1

주: 도지역에서 대기오염농도 지점은 경기 성남, 경북 구미, 경남 울산임.

자료: 통계청, 1994, 「지역통계연보」.

게 나타난다 (표 18 참조). 이는 영남지역 주민들이 생활과정에서 자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다소비형 산업들이 그만큼 더 많이 입지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1인당 전력판매량을 가정용과 서비스용에 국한시키면, 서울에서의 1인당 전력이용량은 영남지역의 대도시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청정연료라고 할 수 있는 도시 가스는 서울지역에 집중적으로 보급되어 있으며 (총공급량의 50.4%), 영남지역은 석유산업이 발달해 있는 경남지역을 제외하고 서울에 비해 보급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1가구당 공급되는 량도 훨씬 적다. 1인당 급수량도 서울에 비해 영남지역의 대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경남·북지역에서는 훨씬 적게 나타난다. 상수도

의 보급율에 있어서 부산과 대구의 경우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거의 100%에 가깝지만, 하수도의 보급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영남지역에서 하수도보급율은 대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50-60%정도 수준이고, 부산에서는 이보다 낮고, 특히 경남지역에서는 면적율이나 인구율로 볼 때 하수가 거의 대부분 처리되지 않고 막바로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이용 및 처리시설의 상대적 또는 절대적 열악성뿐만 아니라 오염배출시설들의 집중은 지역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일반 고형폐기물의 발생량은 수도권에서 전체의 43.9%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영남지역에서는 28.2%를 차지하고 있지만, 1인당 배출량으로 보면 대구지역이 가장 높고 경남

지역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성을 내포하고 있는 특정폐기물의 경우 경남,북지역의 배출량은 전국의 31.1%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배출시설들은 서울에 비해 부산과 대구에 절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해 있으며, 경남·북지역은 경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은 경남·북지역이 경기지역에 비해 훨씬 많다. 또한 대도시지역에서의 대기오염도 대구, 부산이 서울 보다도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기업에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은 금액상으로 볼 때 대량의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섬유, 염색공단이 입지해 있는 대구에서 가장 많이 물고 있고, 경남에서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오염배출시설의 과잉집중과 지역환경오염의 심화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하는 지역환경운동을 빈번하게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더이상의 지역경제 성장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60년대 이후 영남지역은 급속한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보였으며, 수도권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주요한 몫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기존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및 포드주의적 중화학공업들로 구성된 산업구조의 한계로 인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소 침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의 산업 및 인구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성장/침체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화폐소득이나 물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절대적으로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 나타내는 지역내적 및 외적 불균등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위화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물질적 지표들의 향상은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해 비록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사회문화적 및 환경적 요

인들을 고려해 볼 때,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구조의 재편, 지구환경문제를 명분으로 한 국제환경규제의 강화,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시행 등에 따라 세계적-지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제정치적 변화과정은 앞으로 영남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된다. 물론 앞으로 변화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영남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제반 여건들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현단계 개발계획의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 및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註

- 1) 1980년대 한국의 산업구조조정 성격과 이에 따른 지역발전과정에 관한 연구는 다소 논쟁적이다. 이에 관해 조명래(1991), 조형계(1994), 최병두(1994) 등 참조.
- 2) 이에 반해, 수도권지역은 첨단산업활동에 근간을 둔 다양한 활동들의 밀도높은 통합네트워크로 연계된 신산업지구 또는 체계지역(system space)의 특성을 (다소간에) 나타내고 있다. 조명래(1991), Scott(1988), Leborgne & Lipietz(1991) 참조.
- 3) 그러나 이러한 전환과정은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남지역내에서도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 기간 총고용자수는 수도권에서 53만명, 부산,경남에서 30만명 정도 증가한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3만명 정도 증가했다.
- 4) 이러한 직종별 구성비와 그 변화율의 차이는 지역간에 다소 복잡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제조업 종사자(생산직과 사무직 모두에서) 1인당 년급여액은 영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며, 1980년대에 그 인상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 5) 1980년대 제조업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생산 수준(제조업 전체 평균=100)의 변화를 보면, 경남북지역의 주력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제 1 급속업은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

- 지하고 있고 (1981년 195.8, 1989년 193.2), 화학, 석유업은 전체 평균을 상회하지만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 (1981년 156.1, 1989년 125.4). 반면 1980년대 산업성장을 주도했으며 특히 수도권에서 집중, 급성장한 조립금속업은 아직 전체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조립금속업의 성격(즉 기술중심산업)과 그동안 성장추세로 볼 때, 앞으로 이 업종의 부가가치생산 수준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6) 반면 전국에서 최상위계층(100만원 이상)의 근로자들 중 50.3%는 서울에 집중해 있다.
- 7) 영남지역 부산과 대구의 대도시 주민들의 1인당 총생산액은 서울에 비해 적은 반면 경남·북은 이와 비슷하거나 또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수치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소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文 獻

강승구, 1995, 대구지역 경제의 국제화 수준분석, *대구경북사회의 이해*, 대구사회연구소편, 한울, 191-213.

권오혁, 1995, 연구개발활동의 공간적 입지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권오혁·한표항, 1994,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지방유치 및 육성, 지방행정연구원.

김 건, 1991,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와 산업구조 조정, *사회경제평론*, 한국사회경제학회 편, 3, 9-63.

김덕현, 1992, 한국경제발전과 공간구조 변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석준, 1992, 국가주도 산업화와 불균형지역개발, *현대사회*, 12(2), 3-19.

김애경, 1995, 대구지역 제조업 생산조건 특성, *대구경북사회의 이해*, 대구사회연구소편, 한울, 145-166.

김왕배, 1992, 한국의 자본축적과 지역의 구조화,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김중환, 1995, 생활통계자료로 본 대구시민의 삶의 질, *대구경북사회의 이해*, 대구사회연구소편, 한울, 328-359.

김형기, 1995, 대구지역경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

과제, *대구경북사회의 이해*, 대구사회연구소편, 한울, 107-144.

노홍형, 1993, 산업구조조정과 고용구조의 변화, *한국경제의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자계급*, 한국산업사회연구소 편, 녹두.

박삼욱, 1989, 첨단기술산업입지와 지역경제발전, *지역연구*, 5(2), 1-19.

박삼욱, 1993, 수도권 제조업 구조변화와 산업구조 조정방향, *지리학논총*, 21, 1-16.

백옥인, 1989, 노동자계급 상태연구방법론 시론, *경제와 사회*, 3.

신성일, 1992, 제조기업 본사와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연계: 수도권지역을 사례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이성진, 1995, 중소기업 관점에서 본 대구지역 경제문제, *대구경북사회의 이해*, 대구사회연구소편, 한울, 167-190.

임휘철, 1992, 오늘의 한국경제-산업구조조정의 현단계와 ME산업화의 내일, *동향과 전망*, 15, 93-122.

조명래, 1991, 후기주변부 포드주의와 지역구조화,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한국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편, 한울, 213-251.

조형제, 1994, 산업구조조정과 지역별 산업구조의 변화,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한국사회학회 편, 나남, 205-235.

초의수, 1993,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와 지역구조의 변화,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최병두, 1991, 자본축적의 위기와 지역불균등발전, *한국의 공간과 환경*, 한길사, 125-147.

최병두, 1994, 산업구조조정과 지역불균등발전: 1980년대, *대한지리학회지*, 29(3), 137-165.

최용호, 1992, 대구지역 중추관리기능의 실태와 강화방안, *대구상의*, 대구경제연구센터.

Daniels, P.W., 1991, Service sector restructuring and metropolitan development: process and prospects, in Daniels, P.W.(ed.), *Services and Metropolitan Developm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1-25.

Leborgne, D. and Lipietz, A., 1991, Two social

영남지역 발전의 전망과 과제: (1) 발전과정과 삶의 질

strategies in the production of new industrial spaces, in Benko, G. and Dunford, M. (eds.), *Industrial Change and Regional Development, London and New York*, Belhaven Press.
Scott, A.M., 1988, *Metropolis: From the*

Division of Labour to Urban Form, Univ. of California Press.
Malecki, E.J., 1991,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Dynamics of Local, Regional, and National Change*, New York, Longman.

A Prospect and Tasks for Regional Development of Youngnam Area :

(1) Development Process and the Quality of Life

Choi, Byung-Doo*

Summary

This paper is the first part of a research which looks into the regional development process and the quality of life of Youngnam area, and which suggests a prospect and task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region. Youngnam region has grown rapidly on the basis of labor-intensive light industries and standardized Fordist large-scale heavy industries through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of South Korea from the 1960s; but recently it has shown a relatively downward trend.

The recent economic stagnation of Youngnam region can be seen as a result of uneven regional development in the national scale, which has brought out the increasing subcontracting relation within the region, the geographically excessive concentration of firms, the lack of growth potentiality of high-tech industries, the weakness of producer service, and the shortage of financial activities for capital flows. In

addition, construction of phys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s and management of urban central functions could not meet properly the rapid economic and urban growth of the region.

Because of these problematics inherent in the economy of Youngnam region, the occupational status of regional dwellers is more or less unstable, and the wage level of employee as a whole in Youngnam region is lower than those of Seoul, although the wage level of labourers in manufacturing is relatively high. Moreover, the quality of life of dwellers in the region has some difficulties in the use of resources and ecological environment as well as the unequal provision of means of living and welfare facilities, even though it has been improved materially.

Key Words: Youngnam region, regional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uneven regional development, quality of life.

* Associate-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aegu University.